

# 朝鮮前期史 研究 100年\*

-概說書에 나타난 朝鮮前期의 歷史像을 중심으로-

鄭 杜 熙

1. 머리말
2. 日帝 植民地時代의 概說書들
3. 解放 직후의 概說書들
4. 1960-1980 년대의 概說書들
5.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傾向의 概說書들
6. 맺음말

## 1. 머리말

최근 여러 방면에서 한국사 연구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사에 대한 概說書나 時代史 등은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논문이나 저서 등을 통해 밝혀지는 역사적 사실들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면에서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역사상을 그려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의 효용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학자들 각 개인의 연구가 긴밀한 연관성을 맺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개설서는 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과거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개설서에 정리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그 이후의 개별적인 연구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개설서에 대하여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지난 30여 년 사이에 한국사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그처럼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상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개별적인 연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도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동시에 학자들 사이에 있게 마련인 견해차이도 더욱 드러나게 마련이다. 學問의 세계에서 이러한 견해차이는 있게 마련인 것이지만 개별적 사실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적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면 그런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또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인가? 개별적인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역사가들은 자신의 연구결과가 동시대의 다른 현상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며, 또한 前後의 時代相과 흐름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역사연구의 근본목적이 개별적인 사실 하나 하나를 구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모여 이루게 될 전체적인 역사상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들이 概說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연구가 이처럼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좋은 개설서가 많이 출현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오래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朝鮮前期의 역사연구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런데도 1962년 震檀學會에서 펴낸 『韓國史 近世前期篇』(乙酉文化社)이 나온 이래 아직도 시대사 한 권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지난 30여 년간 조선 전기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발전하여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연구자세를 가다듬는 일은 아무래도 이러한 반성과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별적인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概說書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역사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설서에는 이것이 저술되는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역사상은 이후의 역사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설서의 성격상 朝鮮前期의 歷史像이 한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그 나름대로 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개별 연구자들이 소홀히 여겨온 근본 문제들을 새삼스럽게 부각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필자는 50여종 이상의 개설서를 구해 읽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조선전기 역사에 대한 학계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또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필자가 읽은 것이나마 모두 언급할 수는 없었으며, 선택적으로 논평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sup>1)</sup> 따라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여기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했던 개설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필자의 이 작은 논문이 종래 연구논문이나 저서들에 대한 回顧와 展望에서 드러나기 어려웠던 또 다른 문제점들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깊은 思索이 담긴 좋은 개설서를 세상에 내놓으려는 學界의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2. 日帝 植民地時代의 概說書들

### (1) 韓國人 學者들이 쓴 概說書: 安廓, 『朝鮮文明史』

일제시대의 개설서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安廓의 『朝鮮文明史』이다.<sup>2)</sup> 安廓의 『朝鮮文明史』는 ‘一名 朝鮮政治史’란 부제가 달려 있듯이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우리 나라 政治史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 규모나 체제, 그리고 概說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時代區分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이전의 어떠한 개설서와도 비교될 수 없는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安廓은 太古 部落時代, 上古 小分立政治時代(檀君-三韓末期), 中古 大分立政治時代(三國-南北朝), 近古 貴族政治時代(高麗), 近世 君主獨裁政治時代(朝鮮)의 5단계로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시도하였으며, 그 단계에 따라 일정한 발전을 이룩해 온 역사로 서술하였던 것이다.<sup>3)</sup>

그는 李成桂에 대하여 당시의 폐단을 구하고, 어지러운 정치를 바로잡으며, 새로운 정치의 기초를 세운 “恩人”이라고 하면서 조선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고 있다.<sup>4)</sup> 이처럼 조선왕조의 건국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그는 당시

1) 필자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쓰여진 개설서 50여종을 읽고 쓴 원래의 원고는 그 양이 너무나 많아 『동아연구』에 발표하기 위해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선택의 범위를 대폭 줄여, 대표적인 개설서만을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개설서들에 대한 것을 포함한 논문 전체를 별도의 기회에 발표할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2) 安廓, 『朝鮮文明史』(滙東書館, 1923) 책은 『自山安廓國學論著集』(여강출판사, 1994)에 수록되어 있다.

3) 安廓의 『朝鮮文明史』의 시대구분이 매우 독창적이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임을 다음과 같은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李泰鎮, 「安廓」 『韓國史 市民講座』 5 (一潮閣, 1989) pp.153-154.

韓永愚, 「1920년대 安廓의 民族主義文化史敘述 - 『朝鮮文明史』를 중심으로, 『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pp.185-188.

4) 安廓, 『朝鮮文明史』 p. 172.

누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던 조선왕조의 당쟁에 대하여도 매우 새로운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책의 제6장 “近世 君主獨裁政治의 時代”에서 조선의 당쟁에 대하여 政黨의 發生, 政黨의 發達, 黨派와 政治發達이라는 3개의 節을 따로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 제목부터 黨爭이라든가 朋黨이라는 표현은 찾을 수가 없으며, 朝鮮의 黨派 혹은 朋黨을 政黨이라 이름하고, 이것의 발생에서부터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던 것이다.

그는 먼저 政黨의 발생이라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당시 국내학자이거나 일본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李建昌의 『黨議通略』의 서술을 비판하였다. 그는 李建昌이 당쟁의 발생원인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近視的” 혹은 “消極的”인 것이라 비판을 가하고 나서<sup>5)</sup>, “黨派의 發生은 積極的 政治의 發達”로 인한 2개의 큰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첫째, 조선의 정치는 이전의 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고 “新局面의 政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一般人民은 政治에 대한 自由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儒生들은 “政案을 제출하여 王 및 政府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크게 제기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政黨이 發生”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sup>6)</sup> 둘째, 조선의 政黨發生은 흔히 東人과 西人이 갈리게 된다는 宣祖初가 아니며 燕山君에서 明宗代에 이르는 50 여 년 동안에 일어났던 士禍를 겪으면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東人은 따지고 보면 그 과정에서 성장한 青年家 혹은 國民黨 혹은 義士派라 할 수 있으며, 西人은 老長家 혹은 官僚派 혹은 外戚派라고 규정하였다.<sup>7)</sup> 安廓이 士禍를 勳舊派와 士林派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해석하고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역사해석에 유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파간의 경쟁이 치열해 가면서 왕권이 약해졌으며, 정당간의 대립은 더욱 확대되고 당파는 갈수록 다수로 분할되어 갔다는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당파의 분열상을 설명하였다.<sup>8)</sup> 그리고 나서 安廓은 당쟁이 우리 나라 정치발달에 미친 영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그는 세조가 議政府署事法을 폐지함으로써 “壓制獨裁의 수단은 무한히 擴大”되었으며, 연산군의 폐정도 그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당파가

5) 李建昌 『黨議通略』에 대한 비판은 安廓, 『朝鮮文明史』, pp. 191-192 참조.

6) 이상은 『朝鮮文明史』, p.192 참조.

7) 『朝鮮文明史』, pp.192-193 참조.

8) 『朝鮮文明史』, pp.194-195 참조.

발생한 후에 정치는 더욱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당파의 발생은 “政治上의 自由”가 성장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당파로 인하여 정부가 자주 교체되는 등 폐단이 없지 않았으나, 정치적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정치에 “靑年の 活氣가 政治舞臺를 裝飾”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각 당파는 자신의 주의주장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였으므로 조선 중기의 “學者와 文集의 수효는 前代보다 百倍나 되며” 심지어는 “常人階級에서도”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치열한 당파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당시의 정치에는 파란이 심하였지만, 정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열띤 토론 속에서 결국 정치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安廓은 조선시대를 그 이전의 어떠한 시대보다 발전한 시대로 보았다. 그는 정치사적으로 한국사를 정치가 없던 시대(太古部落時代)에서 小分立時代(上古)와 大分立時代(中古)로 점차 통일을 지향해 가는 발전사관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貴族政治時代(近古/高麗) 보다는 “政黨”에 기초한 조선의 정치를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시대를 “近世”라고 구분한 까닭을 나름대로는 분명히 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1928년에 나왔던 玄采의 『朝鮮歷史』와 비해 본다면 安廓의 『朝鮮文明史』가 당시에 얼마나 앞서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安廓은 실로 수많은 자료를 섭렵하였다. 그 스스로도 모두 8500책을 보았다 하였으며, 그가 읽은 책은 국내의 저서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서적, 그리고 서양의 “獨逸法制史, 奴馬法制史, 각종 政治史, 政治學”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朝鮮文明史』 전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安廓은 조선시대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최초의 학자였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1920년대의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견해를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sup>10)</sup>

9) 이상 정당 정치의 3가지 영향에 대하여는 『朝鮮文明史』 pp.196-198 참조. 그리고 安廓의 당쟁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이 지니는 가치에 대하여는 韓永愚, 앞의 논문, pp. 191-192 참조할 것.

10) 安廓의 업적을 개화기 이래의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앞서 인용한 李泰鎭의 논문이 큰 도움이 되며, 安廓의 업적을 史學史의 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인용한 韓永愚의 논문이 많은 참고가 된다.

## (2) 日人 學者들이 쓴 概說書: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三品彰英, 『朝鮮史概說』(弘文堂, 1940)은 출판된 지 5개월 후인 1940년 8월에 재판이 나왔다. 당시 몇 부를 인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초판이 나오자 몇 달 후에 바로 재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널리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개설서 중에서 필자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한국사를 보는 관점을 명확하게 이론화하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植民主義史觀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이 책에서처럼 명백하게 이론적 형태를 띠고 있는 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사에 대한 서술체제나 내용도 이 책처럼 체계를 이룬 것은 없었다.

이 책은 문고판 크기에 200 페이지도 되지 않지만, 그 서술체제나 내용이 이전의 일본인 개설서와는 아주 다르다. 우선 이 책에서는 첫머리에 '序說'을 두고, 여기에서 다시 '朝鮮史의 他律性' '朝鮮文化의 基調' '神話와 時代精神'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朝鮮史의 他律性'이라는 데서는 그 제목만 보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朝鮮史의 他律性'의 內容構成

朝鮮史는 朝鮮半島의 歷史  
 半島의 附隨性, 周邊性, 多隣性과 그 歷史的 性格  
 對外關係事項의 重要性  
 支那의 典禮主義 主智主義的 支配  
 事大와 交隣  
 이데올로기의 缺乏  
 黨閥性과 依賴性과 雷同性  
 宿命論者  
 考證學의 不振

이러한 三品彰英의 한국사론은 일견 너무나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후 국내외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三品彰英은 소위 "李朝史의 性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李氏 五百年의 王朝史는 그 壽命이 길었던 것에 비하여, 新羅史나 高麗史에 비하여 時代的 多樣性을 지니지 못하였다. ... 이러한 李朝의 역

사는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李朝 최후 450년을 제외한다면 國外勢力의 정세가 대체로 一律的이어서, 그 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類型的으로는 매우 단순하였다. (2)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對外態度가 事大主義로 일관하여, 말하자면 李朝는 事大主義의 完成期라고 볼 수 있으며, 그 事大主義는 對外問題 뿐 아니라 생활전반을 지배하는 意識이 되었으며, 이데오로기의 無發展을 결과하였다.<sup>11)</sup>

그는 신라-고려를 거치면서 한국의 역사는 더욱 퇴행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조선의 역사는 국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도 없으며, 사대주의로 일관한 역사라고 단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는 조선시대사의 시대구분을 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는, “高麗 政治는 貴族的權威에 의존하였지만, 李朝는 儒學의 이념에 따른 合理主義 文化主義의 시대로서, 극단적인 文治 政治를 그 이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王朝의 時代區分을 시도할 경우, 이러한 李朝史의 본질에 기초하여, 儒敎主義가 政治史的으로 盛衰하는 양상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sup>12)</sup>고 주장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조선의 역사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던 것이다.<sup>13)</sup>

<표 1> 三品彰英의 朝鮮時代史 區分

	儒敎政史에 의한 區分	政權에 의한 區分
前期	儒佛抗爭期 士禍期(準朋黨期)	王權興隆期 제1대 태조 - 제9대 성종 제10대 연산군 - 제13대 명종
中期	朋黨隆盛期	朋黨成立期 제14대 선조 - 제16대 인조 朋黨激化期 제17대 효종 - 제20대 경종
後期	朋黨衰微期	王權中興期 제21대 영조 - 제22대 정조 外戚專權期 제23대 순조 - 제27대 李王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은 아마도 조선사를 그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대구분한 최초의 개설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朋黨의 활동을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儒敎主義支配의

11)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p. 15

12)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p.116

13) 이 표는 三品彰英, 『조선사개설』 p. 116에 있는 두 개의 표를 하나로 재정리한 것이다.

政治史的 樣相은 소위 朋黨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李朝史의 반 이상은 朋黨史라고 보아야 할 것<sup>14)</sup>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儒敎와 朋黨을 일체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전기는 朋黨의 발생기며, 중기와 후기는 朋黨의 융성과 쇠퇴의 시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sup>15)</sup> 三品彰英의 이러한 부정적인 朝鮮史觀은 1945년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에 간행되었던 『朝鮮史概說』이 1952년도에 增補1版의 형식으로 弘文堂에서 다시 인쇄되었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한다.<sup>16)</sup>

### 3. 解放 직후의 概說書들

1945년 해방 이후 새롭게 조성된 분위기는 한국사 연구에 열기를 부어넣었으며, 동시에 국내의 학자들은 독립된 조국의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했다. 불안정한 해방정국 속에서, 또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개설서가 계속 출판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全錫淡 『朝鮮史敎程』(乙酉文化社, 1947)은 해방 직후에 나온 개설서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저서 중의 하나이다.<sup>17)</sup>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에 따라 그는 삼국의 성립시기부터 조선왕조말기까지를 봉건사회로 보았으며, 우리 역사상의 봉건제를 “官僚的 執權封建制”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러

14)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p. 116

15) 李泰鏞은 黨爭이란 용어는 일본인 幣原 坦이 조선의 派爭性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봉당간의 싸움’이란 뜻으로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黨爭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고, 그 대신 봉당이란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 (李泰鏞,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 『朝鮮時代 政治의 再照明』(汎潮社, 1965), p. 14) 이후 최근에는 오래 동안 사용되던 黨爭이란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고 봉당, 奉堂정치 등의 말이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일본인 학자들의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朝鮮의 政治史를 朋黨史라고 보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책의 큰 제목이나 소제목에서는 黨爭보다는 朋黨이란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三品彰英의 경우 아예 朋黨史에 따라 朝鮮時代를 區分하고 있을 정도라는 점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최근의 경향대로 朋黨, 朋黨政治를 朝鮮王朝의 독특한 정치형태로 보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黨爭이란 용어는 植民主義史觀의 영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朋黨이란 용어를 써야한다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6) 필자는 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의 1940년 판과 1952년 판 모두를 李基白 선생님의 호의로 읽을 수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17) 1989년 범우사에서는 이 책을 『민중조선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하였다. (범우문고 76). 『민중조선사』에는 편집자의 서문이 추가되고, 또 본문은 현대의 맞춤법에 따라 고쳐졌다. 그러나 1947년판과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기에, 이 논문에서는 『민중조선사』를 참고로 하였다.

한 관료적 집권봉건제의 완성시대로 보았다.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까지 소책자 형태로 나온 여러 가지의 『朝鮮歷史』들은 적은 책에 수많은 내용을 다 넣으려 하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결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全錫淡의 저서는 소책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기타의 『朝鮮歷史』와 비슷하였지만, 과감하게 내용을 압축해서 전 역사를 자신의 사관으로 일관성 있게 조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위의 목차에서 보듯이 다섯 항목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술의 중심을 농민문제에 두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수많은 내용을 생략하였지만,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이 책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역사는 실천의 기록이다. 역사는 실천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실천의 창조자다. 그러므로 역사를 실천하는 자만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sup>18)</sup> 고 하였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힘이 필요하다.”<sup>19)</sup>라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역사를 실천하는 자는 인민이며,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말할 때 그 인민은 곧 농민이었다.

그는 조선왕조 건국과정에서 고려말의 私田개혁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비교하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前代의 토지소유관계에 본질적으로는 전혀 변경을 주지 않았듯이, 조선정부에 의한 전제개혁도 전대 이래의 토지소유관계에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던 것”<sup>20)</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새 왕조의 “조세·지대 수취의 기반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새 정권의 물질적 기초는 강화”<sup>21)</sup>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대신 “조선사회의 농민들은 최고 지주인 국가의 농노로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 品官·鄉吏·土豪 등의 隸農으로서 더 가혹한 생산 조건 밑에 긴박되어 있었다.”<sup>22)</sup>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선의 관료 조직이 “역대의 어느 왕조보다도 완성된 것이고 또한 정교하고 치밀한 것”<sup>23)</sup>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배계급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권력쟁탈전은 “당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당쟁은 “그 자

18) 全錫淡 『민중조선사』 서문 p. 21

19) 全錫淡 『민중조선사』 p. 17

20) 全錫淡 『민중조선사』 p. 57

21) 全錫淡 『민중조선사』 p. 56

22) 全錫淡 『민중조선사』 p. 60

23) 全錫淡 『민중조선사』 p. 67

체로는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유례가 드물 만큼 광범하게 또한 심각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당쟁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종래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나 그에 영향을 받은 국내 학자들의 당쟁관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이러한 그의 서술은 너무나 소략해서 조선시대의 역사가 충분히 드러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全錫淡의 『朝鮮史教程』은 소책자이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과감하게 선택하여 저자의 사관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반지배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선의 농민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역사서술은 종합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全錫淡은 이 책을 내면서 세계사와 국사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는 "조선은 이미 극동의 한 구석에 고립해 있는 '소우주'가 아니고 세계사의 진보의 기운과 불가분의 관계로 결부된 조선"이므로 세계사의 방향을 똑바로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그러면 서도 그는,

조선 역사는 이제는 이미 세계사적 진보의 기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세계적 진보의 기운에 해소되고 마는 것은 아니다. 조선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조선 자체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민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26)</sup>

라고 하여 한국사에는 그만의 특수성이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인식한 한국사의 특수성은 마르크스의 唯物史觀 내에서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사관은 한국사의 특수성 보다 훨씬 우위의 보편성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국사의 특수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사관에 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

孫晉泰, 『國史大要』(乙酉文化社, 1949)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한 개설서라고 생각한다.<sup>27)</sup> 『國史大要』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제시대가

24) 이상 당쟁에 대하여는 全錫淡 『민중조선사』 p. 68

25) 全錫淡, 『민중조선사』 서문, p. 17

26) 全錫淡, 『민중조선사』 p. 17-18

27) 이 책은 1986년 乙酉文化社에서 다시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86년 판을 대본으로

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출판되었던 대부분의 개설서들이 막연하게 상고-중고-근세라는 식의 삼분법적 시대구분을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매우 독창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國史大要』의 목차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氏族社會 및 部族國家時代(上古史)', 三國時代(古代史 上), '新羅統一時代(古代史 下)', '高麗時代(中古史)', '李氏朝鮮時代(近世史)'로 되어 있어서 종래의 시대구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國史大要』에는 '民族歷史의 大綱'이라는 제목이 붙은 '緒說'이 있으며, 孫晉泰는 바로 이곳에서 이 책을 쓰려는 목적, 방법 및 자신의 사관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밝혀 두었다.

그는 우선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우리 역사를 씨족공동체사회-부족국가/부족연맹국가-귀족국가의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귀족국가시대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왕조 말까지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때를 귀족 국가시대라 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가 귀족계급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sup>28)</sup>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성장과정에 따라 역사를 7 단계로 시대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7 단계는 민족형성배태기를 시작으로 민족형성시초기, 민족통일추진기, 민족결정기, 민족의식왕성기, 민족의식침체기, 민족운동 전개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대구분을 하나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29)</sup>

<표 2> 『國史大要』에 나타난 孫晉泰의 시대구분

社會發展에 따른 구분	民族成長에 따른 구분	해당되는 王朝
氏族共同社會	民族形成胚胎期	新石器時代
部族國家	民族形成始初期	古朝鮮, 夫餘, 三韓
貴族國家	民族統一推進黨期	三國
	民族決定期	新羅統一時代
	民族意識旺盛期	高麗王朝
	民族意識沈滯期	朝鮮王朝
	民族運動展開期	日帝時代

그는 이처럼 『國史大要』의 '總說'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대구분을 제시

하였다.

28) 孫晉泰, 『國史大要』(1986) pp. 13-18. 특히 p. 18을 보면 세 단계의 시대구분에 따른 한국사의 변천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다.

29) 이 표는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區分 問題』, 『韓國史時代區分論』(經濟史學會 編, 乙酉文化社, 1970), pp.8-9에 있는 "韓國史 時代區分 一覽表"의 (7) 孫晉泰 판을 형식만을 바꾸어 놓은 것이며, 모든 것은 李基白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랐다.

하고 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남겨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차만을 보고 孫晉泰의 시대구분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위의 시대구분에서 잘 드러나듯이 孫晉泰는 역사서술에서 민족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역사시대 대부분을 귀족국가로 규정할 경우 민족은 지배계급인 귀족과 피지배계급인 평민이나 노비의 두 계급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민족이란 계급을 초월한 일체적 통일성을 강조하게 마련인데, 민족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에 孫晉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貴族 政治는 이렇게 利己的·非民族的 소수 特權 階級の 專制的이었던 것이다. 귀족도 민족의 한 부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어, 민족은 두 계급으로써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文化는 완전한 하나의 民族文化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있었으니, 高級 文化는 貴族에 독점되어 고도로 발달되었으나, 一般 國民의 文化는 저급한 채 발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고, 오직 하나는 貴族의이요 다른 하나는 民衆의이었던 不平等이 있었을 따름이며, 또 이러한 모양은 옛날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民族의 內部가 平等하여야 할 앞으로의 민족 문화는 이러한 弊惡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sup>30)</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모순 대립되어 보이는 두 계급의 문화 전체가 합해서 민족문화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배와 피지배로 나뉘어진 그런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는 민족의 내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1949년은 해방 후 左와 右의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했던 때이며, 실제로 全錫淡과 같은 학자는 철저한 유물사관에 따라 개설서를 이미 발표한 다음이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孫晉泰는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도 이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했던 사학자였다.

이러한 唯物史觀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대응은 封建社會論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설에 따르는 역사가들 가운데, 李清源은 조선왕조 500년을, 그리고 全錫淡은 고대 아시아적 국가를 거쳐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는 관료적 집권봉건제 사회가 성립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孫晉泰는 “다른 민족들은 모두 封建 制度를 그 역사

30) 孫晉泰, 『國史大要』 pp. 29-30

위에 가졌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시기가 없었다.”<sup>31)</sup>고 단언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에 “功臣에게 어떤 지방의 토지를 주어 그 租稅를 받게 하여 그것을 食邑이라 하고, 또 그들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였으나”<sup>32)</sup> 그것은 “비록 봉건적이었으나 봉건 국가가 아니었다.”<sup>33)</sup>고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나라에 봉건제도가 성립하지 못한 것은, “좁은 지역에서는 中央 集權이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고, 또 外民族의 위협이 있으면 分散의인 정치 행동과 군사 행동보다는 굳센 統一的인 그것이 요청”<sup>34)</sup>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나라에 봉건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열등하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統一的인 政治는 分散의인 封建的 제도보다 民族으로서의 단결을 강하게 하였다.”<sup>35)</sup>고 해석하였다. 그가 역사서술에 있어서 민족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韓國史의 特殊性을 世界史的인 普遍性과의 비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孫晉泰는 『國史大要』의 서문에서,

우리 民族史는 우리 民族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 중의 하나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民族史도 또한 世界史 속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는 鎖國的인 排他的, 獨善的 似而非한 民族思想을 버리고, 開放的이요 世界的이요 平等的인 新民族主義 입장에서 우리 民族史를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sup>36)</sup>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sup>37)</sup>

개설서를 쓰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이처럼 깊이 생각한 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孫晉泰의 『國史大要』는 史學史에서도 기억되어야 할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사관이 실제 서술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우선 위의 시대구분표에서도 보듯이 그는 조선시대를 “民族意識沈滯期”라 하여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士禍에 대하여도 “오직 정권을 쥐

31) 孫晉泰 『國史大要』 p. 30

32) 孫晉泰 『國史大要』, p. 30

33) 孫晉泰 『國史大要』 p. 31

34) 孫晉泰 『國史大要』 p. 31

35) 孫晉泰 『國史大要』, p. 31

36) 孫晉泰 『國史大要』 서문, p. 4

37) 孫晉泰의 사관을 “新民族主義史觀”이라 규정하고 孫晉泰의 역사관과 사학사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는 李基白, 「新民族主義史觀論」(『文學과 知性』 1972년 가을호: 李基白,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所收)을 참조할 것.

고자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다하여 서로 피를 흘렸던 것”이며, “이로부터 李朝史는 文臣들의 추악한 非民族的인 黨派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다가 필경 日本人의 독한 이빨에 깨물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8)</sup> 그리고 당쟁에 대해서도 “黨爭이 非民族的인 것은 그들의 黨論이 하나도 민족 문제에 관한 것이 없음으로써 알 수 있고, 그것이 貴族의인 것은 王室 문제로 많이 싸운 것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이 儒敎的인 것은 소위 禮論이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門族의이었던 것은 싸움이 世襲的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앞으로의 정당은 정정당당하고 명랑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민족을 위하여 정책을 서로 싸워야 할 것이요, 利己的이요 排他的이요 동포의 피를 흘리는 짐승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책을 쓰던 당시의 현실과 비교하였던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그는 당쟁을 “利己的이요 排他的이요 同胞의 피를 흘리는 짐승의 싸움”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한 유교에 대해서도, “儒敎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民主的이 아니요 貴族的이라는 점도 있거니와, 그 밖에 또 朝鮮의 朱子學은 너무나 文治를 중하게 여긴 때문에 武備를 가법게 보았던 것과, 너무나 形式的·理論的이어서 학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성가신 느낌을 주었던 것과, 그들이 정치의 세력을 독점하였던 까닭에 너무 교만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 등으로, 武備가 아무 것도 없어 日本과 淸나라의 침로도 받게 되거니와, 한번 변변치 못한 임금이 서게 되면 곧 반대당과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sup>40)</sup> 이었다고 부정하였다. 유교가 민주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왕조가 日帝에 의해 멸망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500년 조선시대사 전체를 부정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사에 대한 목차 구성을 보더라도 ‘建國初期의 建設事業’ ‘貴族들의 政權爭奪’ ‘日本 및 淸과의 戰爭’ ‘貴族政治의 紊亂과 民衆의 貧困’ ‘李氏朝鮮의 마지막’ 등으로 나눈 것에서 보듯이 간략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내용이 간략한 것은 당시 아직도 조선전기는 물론 조선시대 전체에 대한 연구가 워낙 일천하였기 때문에 그만의 잘못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그러나 500년의 朝鮮歷史를 한결같이 부정하고서 그의 새로운 역사서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조선시대에 관한 한 일제시대 식민주의적 사학자들이 주장한 거의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38) 孫晉泰, 『國史大要』, p. 195

39) 孫晉泰, 『國史大要』, p. 204

40) 孫晉泰, 『國史大要』, p. 191

는 것은 『國史大要』가 지니는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李仁榮, 『國史要論』(金龍圖書會社, 1950)은 孫晉泰의 『國史大要』(1949)의 민족적인 사관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역사해석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뚜렷한 개설서이다.<sup>41)</sup> 『國史要論』은 모두 25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제25장 『國史와 世界史』와 부록 『우리 民族史의 性格』에서는 저자 李仁榮의 사관이 잘 나타나 있다. 개설서를 쓰면서 그도 孫晉泰 처럼 우리 역사를 보는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두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세계사적인 흐름에 노출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그는 이 책에서 「國史와 世界史」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는 “國史는 우리 民族의 形成 盛衰의 역사로 國史의 主體가 우리 民族 自身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民族은 우리 民族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交涉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sup>42)</sup>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사가 세계사에 묻혀 독자적인 특수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國史의 主體가 언제나 우리 民族 자신인 만큼 世界史的 潮流 또는 소위 世界史的 必然性을 중시하는 나머지 民族의 意志 民族의 創造를 전혀 沒覺하여 버린다고 하면 국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姑捨하고 世界史的 파악에 있어서도 正鵠을 잃을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國史와 세계사, 民族文化와 世界文化, 이것은 일견 대립되는 듯 하지만 실상은 不可不離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 같이 世界 人類 社會 發展史를 형성하는 것이다.<sup>43)</sup>

그는 역사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唯物史觀論의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觀念的 民族性的 優秀 또는 劣열”에 만사를 귀결시키는 편협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sup>44)</sup>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역사관을 “民族的 世界觀에 立脚한 世界史的 國史의 새로운 認識”이라 규정하고<sup>45)</sup> 이러한 역사관

41) 李仁榮의 『國史要論』(金龍圖書會社, 1950)은 1958년 民敎社에서 다시 출판되었는데, 모든 내용은 1950년판의 『國史要論』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42) 李仁榮, 『國史要論』, 제25장 「국사와 세계사」, p. 219

43) 李仁榮, 『國史要論』, 「국사와 세계사」, pp. 219-220

44) 李仁榮, 『國史要論』, 「국사와 세계사」, p. 220

45) 李基白의 논문 「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에 의하면 “民族的 世界觀에 입각한 世界史的인 國史”의 주장이야말로 李仁榮 한국사관의 새로운 경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p. 115)

이 앞으로는 크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sup>46)</sup> 이런 점에서 그는 孫晉泰의 新民族主義 태도에 상당히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7)</sup>

그러나 그는 孫晉泰의 시대구분이 한국사를 우리 민족의 형성과 성장과정에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하였다. 이 둘의 시대구분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의 <표3>을 만들었다.<sup>48)</sup>

<표 3> 李仁榮과 孫晉泰의 시대구분 비교

李仁榮의 시대구분	孫晉泰의 시대구분	해당되는 王朝
民族胎動期	民族形成胚胎期	新石器時代
	民族形成始初期	古朝鮮, 夫餘, 三韓
	民族統一推進期	三國
民族成長期	民族決定期	新羅統一時代
	民族意識旺盛期	高麗王朝
民族沈滯期	民族意識沈滯期	朝鮮世宗代
		朝鮮土禍黨爭期~甲午更張직전까지
民族覺醒期	民族運動展開期	甲午更張 ~ 韓日合邦
		日帝時代

위의 표를 보면 李仁榮의 시대구분은 조금 다르긴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孫晉泰의 시대구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仁榮은 삼국시대까지의 고대사를 民族

46) 李仁榮, 『國史要論』 「국사와 세계사」, p. 220

47) 李仁榮은 “民族의 世界觀에 立脚한 世界史的 國史의 새로운 認識”을 주장한 다음에, 鎖國的인 排他的 獨善의 似而非한 民族思想을 버리고 開放的인 世界的인 平等的인 新民族主義 立地에서 우리 民族史를 研究하고 理解” 하여야 한다는 孫晉泰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孫晉泰의 신민족주의적 역사관에 깊이 공명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國史要論』 pp. 220-221 참조)

李仁榮의 주장이 孫晉泰의 영향임이 뚜렷하다는 것은 일찍이 李基白이 지적한 바가 있다. (『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p. 113 李基白의 이 논문은 李仁榮의 사학의 사학사적 의의와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李仁榮이 孫晉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사관이 완전히 일치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李仁榮 사학이 孫晉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李基白의 논문 p. 117-118을 참조할 것. 여기에서 李基白은 “日帝의 植民主義史觀이라도 객관적인 견해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학자적인 양심에서 우리나라의 말이다. 그러나 가령 孫晉泰의 경우에 植民主義史觀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훌륭히 자기대로의 독자적인 韓國史觀을 수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李仁榮은 요컨대 식민주의사관의 전형적 산물인 정체성과 타율성을 한국사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48) 이 표도 李基白, 『韓國史의 時代區分 問題』, pp. 8-9에 있는 『韓國史 時代區分 一覽表』에서 사를 받아 만든 것이다.

形成胚胎期, 民族形成始初期, 民族統一推進期の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李仁榮은 民族胎動期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孫晉泰가 신라통일시대부터 고려왕조 말까지를 民族決定期, 民族意識旺盛期로 한 것을 그는 신라통일시대부터 조선왕조의 세종대까지를 民族成長期로 규정하였다. 孫晉泰가 조선왕조 초부터 끝까지를 民族沈滯期라 한 것을 李仁榮은 문종대 이후 갑오경장 직전까지를 民族沈滯期로 하였다. 그리고 孫晉泰가 일제시대를 民族運動展開期라 한 것을, 李仁榮은 甲午更張 때부터 일제시대 끝까지를 民族覺醒期로 보았다. 그 시대 명칭의 수는 줄었지만 민족이 형성, 발전, 침체하여 가다가 다시 각성하는 단계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孫晉泰와 동일하였던 것이다. 여기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세종대까지는 민족성장기에 속하고 그 이후 갑오경장 직전까지는 침체기, 그 이후 일제시대 끝까지는 각성기로 보아, 조선왕조를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세 개의 시대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그는 왕조를 단위로 한 시대구분을 벗어나려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기에 그가 孫晉泰의 시대구분이 결과적으로 왕조 중심적이었음을 비판하고, “國史가 우리 나라의 王朝史로 그치어서는 아닐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sup>49)</sup>

이렇게 李仁榮은 자신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孫晉泰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 다음, 우리 역사의 普遍성과 特殊性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封建制度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신라의 통일 이후 우리 역사상에 지방 분권적 경향이 대체로 세 번 정도 있었다 보았다. 즉 新羅末 後三國時代가 그 첫 번째이며, 高麗 中期의 武人執權時代가 두 번째이며, 高麗末 李成桂가 대두하던 시대가 세 번째라는 것이다. 이 세 번의 시기에는 “어떤 것이나 實力을 지닌 武人에 의하여 나라가 움직이어 졌으며 또 지방 割據的 分權의 경향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봉건제도적 요소가 비교적 강했던 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우리 나라에 봉건제도가 있었다고 보아서 안되며, “典型的 分權的 封建制度”가 우리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다.<sup>50)</sup> 그리고 그는 “여러 번 分權的 要素를 내포하면서도 결국 分權的 封建制度의 성립을 보지 못한 원인의 하나는 대륙 세력의 영향, 外勢力의 압력이 있었던 때문”<sup>51)</sup>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sup>52)</sup>

49) 李仁榮이 孫晉泰의 시대구분을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안 것은 『國史要論』 pp. 221-222 참조할 것. 또한 李基白의 논문 「新民族主義史觀과 植民主義史觀」 pp. 112-113을 보면 李仁榮의 시대 구分的 특징과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孫晉泰의 시대구분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50) 이상 봉건제도에 대한 문제는 『國史要論』 pp. 225-226 참조.

51) 李仁榮, 『國史要論』 p. 227

李仁榮의 韓國史觀이 孫晉泰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 李基白의 주장대로 李仁榮이 식민주의사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여도 『國史要論』의 朝鮮前期 부분을 보면 그가 이 시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이래의 개설서 중에서 조선전기부분을 보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조선의 土禍나 黨爭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해석을 가하고, 그러한 요인을 지니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孫晉泰조차도 『國史大要』의 총설에 나타난 사관과 조선시대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서술 사이에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朱子學, 土禍, 黨爭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자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의식은 이미 식민주의사학을 훨씬 넘어섰으면서도, 조선시대의 역사해석에 만큼은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기 보다는 조선시대에 대한 역사연구가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던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그의 전문분야가 고대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의 연구와는 멀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李仁榮은 그 자신의 주된 관심분야가 조선시대였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역사해석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그의 한국사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할지라도 조선시대사에 대한 구체적 역사서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식민주의사관의 패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李仁榮은 먼저 조선왕조의 사대주의 망국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는 조선왕조 건국과 더불어 추진된 사대교린 관계가 당사국간의 양해하에서 수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당사국 쌍방이 목표하는 바는 서로 다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事大 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朝鮮은 中國의 일 王侯國으로서 책봉을 받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때때로 중국의 頒詔使를 영접하는 한편 聖節使·千秋使·正朝使(賀正使)·冬至使 각종의 謝恩使·奏請使 기타 경

52) 이 점에 있어서도 李仁榮은 孫晉泰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孫晉泰도 국사상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현상이 “비록 봉건적이었으나 봉건 국가는 아니었으며, 우리 나라에 봉건제도가 성립하지 못한 것은, “좁은 지역에서는 中央 集權이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고, 또 外民族의 위협이 있으면 分散的인 정치 행동과 군사 행동보다는 굳센 통일적인 것이요정”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던 것이다.(『國史大要』 p. 31)

사에 대한 사절을 중국에 파견하여 조선은 형식적 정치적 종속 관계에 서게 되는 바 이 점은 중국의 희망이요, 목표하는 바이며 조선의 사신이 반드시 조공을 가지고 가는데 대하여 중국도 반드시 상사를 내리는데 이 상사야말로 바로 조선이 목표하는 그것이다. 조공과 賞賜 이것이 일종의 官貿易인 것은 현대 역사학의 상식이다. 무역 이외에 사신이 내왕할 때마다 북경에는 會同館의 私貿易이 있고 서울에는 太平館의 사무역이 행하여 졌으니 이 역시 조선이 희망하는 바로서 中國은 朝鮮의 誠心 順從으로써 만족하고 조선은 중국의 국제적 승인과 문화와 물자의 수입으로써 만족하였던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중원의 대국, 중국의 국제적 승인을 받으며 그 선진 문화를 수입하여야만 하였으니 중국을 지배하는 강대한 통일국가에 대한 朝貢은 문화 수입상으로 없지 못할 조건의 하나이었던 것이다.<sup>53)</sup>

이처럼 事大交隣政策이 양국간에 가져다 줄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 소위 말하는 '事大主義'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또한 士禍의 원인에 대한 종래의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新舊의 대립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다만 이 新舊의 대립 투쟁을 단순한 學問的 學派的 對立이나 地方的 偏黨的 對立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新舊 대립을 단지 學問 장려와 어떤 제도 설정의 결과라고만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sup>54)</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士禍는, "李氏 王朝의 사회와 정치가 고정 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개혁하여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려는 요구에서 우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 新進 士類가 臺諫 弘文館에 자리를 차지하자 기성 세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현실을 비판하며 탐관 오리를 배격하며 주자학의 이론으로써 현실을 개혁"<sup>55)</sup>하려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당쟁도 초기와 후기에 따라 그 성격이 달랐음을 암시하면서, 당쟁의 시작을 흔히 沈義謙과 金孝元의 대립과 갈등에서 찾는 것은 잘못임을 먼저 지적하였다. 그는, "물론 심(의겸)김(효원)의 반목이 東西 分黨의 도화선의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나 黨論의 역사적 토대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서, "士禍와 初期 黨論은 新舊 對立이라는 점과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토대로 하는 점에 있어서 전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56)</sup> 그러나

53) 李仁榮, 『國史要論』, pp. 123-125

54) 李仁榮, 『國史要論』, p. 141

55) 李仁榮, 『國史要論』, p. 143

56) 李仁榮, 『國史要論』, p. 149

후기의 당쟁은 초기의 당쟁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서 그는 “土禍 시대에 있어서는 朱子學的 理論의 이상주의적 실천 운동이 주가 되었으나 黨爭 시대에 들어서부터는 黨派性만이 주가 되고 뚜렷한 主義 主張의 이론적 전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黨爭과 더불어 사회적 모순은 성장할 뿐이었으니 土禍 시대의 혁신 사상으로서의 朱子學의 이론은 벌써 현실을 떠난 공리 공론이 되었던 것”<sup>57)</sup>이라고 서술하였다.

事大主義, 土禍, 黨爭, 이 세 가지 주제는 일제시대이래 조선시대사를 단죄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었으며, 이 때까지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 물론 그도 “李氏王朝의 정치와 문화는 成宗 일대를 爛熟期로 하여 이후 쇠퇴기”<sup>58)</sup>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李仁榮은 이러한 그릇된 상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건국과 그 역사를 재인식하게 만든 역사가였다.

#### 4. 1960-1980 년대의 概說書들

이 시기에는 국사교육이 전 대학의 교양필수과목이 되면서 많은 개설서들이 나왔지만, 대개는 당장 필요한 교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기에 학문적으로 성숙한 개설서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李基白은 1961년 『國史新論』(泰成社)을 출판한 이래, 1967년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개설서인 『韓國史新論』(一潮閣), 1976년에는 『改正版 韓國史新論』을 거꾸 출간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다시 『新修版 韓國史新論』을 출간함으로써 이 책은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개설서라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李基白의 개설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李基白, 『國史新論』은 먼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책의 ‘緒論’에서 植民主義的 韓國史觀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비판을 제기하였다. 앞장에서 필자가 지적하였듯이 50년대를 마칠 때까지 일제의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였다. 이것은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에 대한 이론적이며 체계적인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므로 李基白은 자신의 개설서를 쓰기 전에 바로 이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이

57) 李仁榮, 『國史要論』 p. 150

58) 李仁榮, 『國史要論』 p. 139

론적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三品彰英을 위시한 식민주의사관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것을 「半島의 性格論」, 「事大主義論」, 「黨派性論」, 「文化的 獨創性的의 問題」, 「停滯性理論」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이 “大陸의 한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半島였다는 地理的 條件은 韓國史를 지배한 어떤 法則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여 온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주목<sup>59)</sup>되어 왔음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자들만이 아니라 해방 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반도적 성격론은 “韓國의 歷史를 위하여 幸運이었다기 보다도 宿命的인 不幸의 굴레를 씌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리고 “日帝의 支配 밑에서 조장된 民族的인 劣等感은 쉽사리 이러한 宿命論에 同調하게” 만들었던 것이다.<sup>60)</sup>

이러한 지적은 李基白만이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의 반도적 성격론이 이후 사대주의론으로, 다시 당파성론으로, 그리고 또 다시 문화적 타율성과 정체성이론으로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그 만큼 명료하게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李基白의 『國史新論』이 나오던 1961년 당시까지 식민주의사관의 허구성을 이처럼 명료하게 파악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國史新論』은 그 구체적인 내용 못지 않게 이 ‘緒論’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61)</sup>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이처럼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비판한 다음, 그는 역사가로서의 희망과 기대를 ‘緒論’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韓國史의 올바른 認識에 障礙가 되는 그릇된 모든 先入觀과 理論을 속히 清算해야 하겠다. 불필요한 劣等意識의 產物인 경우에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황한 自慢心의 所致인 경우에도 물론 그러하다. 韓國民族의 運命에 대한 따뜻한 關心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人類社會의 發展에 대한 투철한 認識을 토대로 한 정당한 批判的 精神 속에서 이루어진 學問的 成果를 통하여서만 韓國史의 올바른 認識은 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過去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나아가서 現在와 將來를 위한 올바른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59) 李基白, 『國史新論』, 緒論, p. 1

60) 李基白, 『國史新論』, 緒論, p. 1

61) 『國史新論』의 ‘緒論’은 李基白의 또 다른 주요 저서인 『民族과 歷史』(一潮閣, 1971)에 「植民主義의 韓國史觀 批判」이란 제목으로 실려있다. 그리고 『民族과 歷史』는 1992년에 重版이 나왔으며, 1994년에는 新版으로 다시 인쇄되어 나와 쉽게 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62) 李基白, 『國史新論』, 緒論, pp. 9-10

『國史新論』을 쓰던 1961년 당시 한국사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저자 李基白이 가장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식민주의사관의 청산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그릇된 자만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의 관계에 있음을 깨놓은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민족에 대한 허황된 자만심도 실은 식민주의사관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사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되, “인류 사회의 발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토대로 한 정당한 비판적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서술을 바랐던 것이다.

『國史新論』은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철저히 지켰다. 이 점에 있어서 저자는 “概說에 있어서 時代區分은 生命과도 같은 것이겠으나 著者の 지금의 見識이나 國史學의 오늘의 水準이 社會와 文化의 발전과정에 입각한 時代區分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잠시 便宜의인 구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였다.<sup>63)</sup>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편의상 따른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임을 밝히고 준비가 된다면 미래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시도한 새로운 개설서를 낼 것임을 다짐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史新論』의 시대구분은 종래에 우리 역사를 고대-중세-근세라는 식으로 형식적인 구분을 하면서, 실지 그 내용에서는 사실 왕조중심으로 되어있는 관행 같은 시대구분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저자는 『國史新論』에서 “各節의 끝머리마다에 최신의 성과를 주로 한 參考文獻”을 실었으며, “卷末의 附錄”에는 단행본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國史新論』의 ‘後記’를 보면 그는 이 책을 쓰는 처음부터 “이왕에 나온 概說들 뿐 아니라 論文 著書들까지도 일단 통독한 뒤에 그 성과를 충분히 반영”시키자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논문이나 저서들을 참고란에 실어서 國史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해보자는” 뜻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에는 충분한 書目이나 論文目錄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어떤 著書나 論文이 있는지 조차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sup>64)</sup>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상세한 參考文獻을 매 단락별로 제시하고, 책의 끝 부분에는 ‘參考書目’을 분류별로 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저자 자신이 이 개설서를 쓰기 위해 당시 한국사학계가

63) 李基白, 『國史新論』, 例言, p. 2

64) 李基白, 『國史新論』, 後記, p.413

거둔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매우 힘든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國史新論』을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의미를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다.

조선건국 이후의 역사에 대한 『國史新論』의 서술은 여전히 과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해석에 이르도록 노력하였다. 李成桂에 대하여도 “긴 역사를 가진 名門 출신”은 아니었지만, “비단 名將일 뿐 아니라 동시에 유능한 政治家였다. 그는 계획을 실천하되 역지를 삼가는 조심성이 있었다. 王位에 오르기까지의 기나긴 과정이 그러하였고 卽位한 뒤의 여러 시책이 또한 그러하였다.”<sup>65)</sup>고 평가하면서도, 조선왕조 건국 초의 事大政策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國史新論』에서도 사대정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였다. 조선왕조 건국의 사대정책은 항상 망국적인 사대주의와 연결되어 해석되어 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李基白 자신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太祖는 明에 대한 事大를 하나의 國是로서 내세웠다. 高麗의 舊貴族과의 투쟁과정에서 李成桂가 내세웠던 明에 대한 事大는 이제는 李氏王朝의 권위의 보증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太祖의 明에 대한 事大의 특징은 그것이 大義에 속하는 문제, 義理에 속하는 문제로 생각한 데에 있다. 民族史의 오랜 과정 속에서 혹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혹은 경제적 인 문화적인 의미에서 각종 형태로 취해져오던 事大의 경향은 국내적인 파벌 대립과 연결되어서 복잡한 양상을 띄어왔다. 그러나 그것을 大義名分으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망각하는 일은 없었다. 그것이 이제 觀念的인 고결로 화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李氏王權이 약체정권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정치적 지반이 견고하지 못했던 탓이었다. 太祖는 無血革命으로 왕위에 오른 요행아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인 그는 그에게 섬기기를 깨끗이 생각하지 않는 많은 귀족들의 질시 속에서 그를 뒷받침해주는 權威를 필요로 했다. 그 권위로서 太祖는 明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 때문에 비굴할 정도로 明에 대한 忠誠을 바치게 된 것이다. <sup>66)</sup>

그는 사대정책을 국내정세와 결부시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새 왕조의 왕권이 약체이기에 대외적인 권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성계가 “비굴할 정도로 明에 대한 忠誠”을 바치게 되었다고 비하하였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저자 자신의 내부에서는 조선건국 초기의 사대정책이 비굴하게

65) 李基白, 『國史新論』 pp. 197-198

66) 李基白, 『國史新論』, pp. 198-199

보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사상적으로는 불교에서 유교로의 전환이었다고 흔히 해석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조선왕조의 유교는 사대주의 혹은 당쟁과 직접 연결되었기에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일쑤였다. 이 점에 대해서 李基白은, “새로운 王朝의 건설은 사상적으로는 佛敎의 패배요 儒敎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高麗가 佛敎國家였는데 대하여 朝鮮이 儒敎國家였다는 데에 새 왕조가 가지는 새로운 성격이 표시되어 있다. 朝鮮王朝은 이 儒敎에 의하여 安定된 精神의 基盤을 마련한 셈이다.”<sup>67)</sup>라고 하여 유교가 조선왕조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國史新論』에서는 또한 사회와 당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였다. 조선왕조 당쟁의 문제가 한국사 전체의 당파성론으로 그릇 확대 해석되었던 식민주의사관의 폐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사회와 당쟁에 대한 서술에 앞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士禍와 黨爭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사람은 당파싸움을 韓國 民族의 先天的인 성격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李朝史만이 아니라 보다 장구한 民族史 전체에서 살펴볼 때에는 그것을 韓國 民族의 先天的인 性格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그 원인을 당시의 歷史的 社會的 조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sup>68)</sup>

그는 조선의 사회와 당쟁이 한국민족의 선천적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하였다. 일체의 식민주의사관에 입각한 종래의 해석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을 강조한 다음, 그는 이의 원인을 조선왕조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조선 왕조의 양반은 “모두 中央의 首都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비록 地方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中央에 진출하여 官吏가 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던 사회”였음을 먼저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地方分權의인 사회에서와 같이 地方 대 地方의 抗爭이 아니라 中央의 政界를 무대로 한 權力 對立이 나타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여 당쟁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였다.<sup>69)</sup> 그리고 “시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兩班의 數는 증가”하여

67) 李基白, 『國史新論』 p. 199

68) 李基白, 『國史新論』 p. 217

69) 李基白, 『國史新論』, p. 217

갔으나, “官職의 數는 대략 일정”하였기에, 양반 귀족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데에 士禍나 黨爭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sup>70)</sup> 여기서 거론된 양반사회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李基白은 이런 사실을 당쟁과 구조적으로 연결시켜 당쟁의 원인을 그의 표현대로 “歷史的 社會的 조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화에 대해서도 그는 “옛날과 같이 궁정 안의 소수인의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파를 가진 다수인의 공공연한 논쟁을 수반하는 투쟁이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네 번 士禍는 모두 일정한 두 黨派 사이의 對立과 鬪爭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한 파가 승리하면 이에 대해서 새로운 반대파가 생겨서 그것이 또 士禍를 빚어내곤 하였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士禍 속에서 점점 움직이지 않는 黨人을 가진 朋黨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일시적인 士禍가 아니라 항구적인 黨派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sup>71)</sup>

라 하여 사화가 당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李基白은 1961년의 『國史新論』에서 이론적으로 식민주의사관을 체계적으로 비판하여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음을 밝히고, 나아가 당시까지 한국사학계가 거둔 연구성과를 종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서술내용도 크게 바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國史新論』은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에 머물렀다는 점 등 몇 가지 문제에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저자 자신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67)은 『國史新論』(1961)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이후에 크게 진전된 학계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집필된 또 하나의 전혀 다른 개설서였다. 앞서 인용한 바도 있는 『國史新論』의 ‘例言’ 두 번째 항목에서 그는 『國史新論』에서는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정에 입각한” 시대구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잠시 편의적인 구분에” 따르겠다고 말하였다.<sup>72)</sup> 그러므로 그는 때가 오면 『國史新論』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개설서를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그의 희망은 1967년 『韓國史新論』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李基白은 『韓國史新論』의 ‘序文’에서 『國史新論』이 나왔던 1961년 이후 6년 사

70) 李基白, 『國史新論』, p. 218

71) 李基白, 『國史新論』, p. 223

72) 李基白, 『國史新論』, p. 1

이에 “단순한 개별적인 事實의 解明뿐만 아니라, 韓國史의 전체적인 理解를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 질 정도로 “韓國史의 研究는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國史新論』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허다하게 나타났음을 실토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자신의 노력 끝에 『國史新論』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였던 時代區分에 대하여도 이제 희미하나마 體系的인 敘述을 피하여 불 시기에 도달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sup>73)</sup> 그러므로 『國史新論』은 그만의 독자적인 시대구분에 의해 쓰여진 새로운 개설서였다.

이 책의 序章 ‘韓國史의 새로운 理解’는 이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國史新論』의 ‘緒論’에 있던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을 더 체계화하였다. 『國史新論』의 緒論에서는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의 문제’ ‘문화적 독창성의 문제’ ‘정체성의 이론’ 등 여섯 개의 내용으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國史新論』의 序文 ‘韓國史의 새로운 理解’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표 4> 『國史新論』 序文의 체계

제1절 主體性的의 認識	半島的 性格論/ 事大主義論/ 韓國史의 主體性
제2절 韓國史와 民族性	黨派性的의 問題/ 文化的 獨創性的의 理論/ 民族性論의 問題點
제3절 韓國史의 體系化	停滯性的의 理論/ 韓國史의 體系化

이상에서 보면 과거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과 그 내용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것을 훨씬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식민주의 사관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韓國史의 主體性’ ‘民族性論의 問題點’을 더하여 논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로써 그는 식민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더욱 체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韓國史의 體系化’라는 항목을 두고, 단지 식민주의 사관의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사관의 정립과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한국사의 서술을 모색하려는 뜻을 밝혔던 것이다.

그는 ‘韓國史의 體系化’라는 부분에서 식민주의 사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한국사는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韓國史의 時代區分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韓國

73) 李基白, 『國史新論』 (일조각, 1967) '序文' p. 3

史를 어떻게 體系化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sup>74)</sup> 그리고 한국사의 시대구분에서는 두 가지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첫째 그는 王朝 중심의 史觀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王朝들의 운명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韓國史의 停滯性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그는 唯物史觀의 이론에 따른 한국사의 체계화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의 새로운 해석보다는 理論의 일방적인 적용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자연히 허다한 과오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었다.<sup>75)</sup> 그러므로 그는 “과거의 어떤 理論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sup>76)</sup>를 견지하면서 “韓國史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노력”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舊時代의 崩壞보다는 다음 時代의 새 요소를 중요시하는 입장”<sup>77)</sup> 취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새로운 한국사를 체계화하려는 李基白의 시도는 1976년 『韓國史新論 改正版』(一潮閣)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개정판의 특징은 序章 ‘韓國史의 새로운 理解’를 완전히 새롭게 썼으며, 책의 마지막에는 終章 ‘韓國史의 發展과 支配勢力’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마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체계를 따라 쓰여진 연구서와 같은 형식을 지녔던 것이며, 그만큼 저자의 의도가 더욱 명백하게 천명된 것이었다.

『國史新論』의 緒論에서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李基白은 『韓國史新論』의 緒章에서 ‘韓國史의 새로운 理解’라는 제목으로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비판을 더욱 체계화하고 나아가 『韓國史新論』을 쓰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韓國史新論 改正版』의 緒章에서 그는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식민주의사관을 비판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하였으나 이미 그가 계속해왔던 일이었으며, 동시에 1976년 현재의 상황에서 여전히 그런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느라 미래에 대한 모색을 중단하는 일임을 느꼈던 것이다.<sup>78)</sup> 그러므로 개정판에서 그는 식민주의사관을 비판하는 대신에 近代 韓國史學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史學史的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日帝의 植民統治라는 악조건 밑에서도 韓國의 史學者들은 올바른 韓國史學을 키우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을 발견하였으며, 그

74) 李基白, 『韓國史新論』 序章, p. 11

75) 李基白, 『韓國史新論』 序章, p. 12

76) 李基白, 『韓國史新論』 序章, pp. 11-12

77) 李基白, 『韓國史新論』 序章, p. 12

78)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一潮閣, 1976) 序章, p. 3을 참조할 것.

노력으로 인하여 民族主義史學·社會經濟史學·實證史學의 세 흐름이 한국사학 내부에서 발생·성장하여 왔음을 규명하였던 것이다.<sup>79)</sup> 그는 “우리 자신이 이루어 놓은 학문적 전통 속에서 오늘의 한국사학은 성장 발전”<sup>80)</sup>한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학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그는 “社會的 支配勢力의 변천 과정에 기준을 두고 한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史新論 改正版』에 이르러 그의 한국사론은 훨씬 체계화되었으며, 이것으로써 그는 식민주의사학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韓國史新論』을 개정판까지 이끌고 오면서 형성된 자신의 입장을 개정판의 終章 “韓國史의 發展과 支配勢力”에서 더욱 이론화하여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90년에 『韓國史新論 新修版』을, 그리고 1999년에는 『한글판 韓國史新論』을 내었다.

그러면 『韓國史新論』에서는 조선전기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서술을 일일이 제기하기보다는 『韓國史新論』과 그 개정판, 新修版의 목차를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이 세 책의 목차를 조선전기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표5>를 만들었다. 이를 보면 『韓國史新論』의 제8장 士大夫의 登場, 제9장 兩班社會의 성립, 제10장 兩班社會의 발전 등이 소위 朝鮮前期 역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런 체제는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제10장을 ‘士林勢力의 성장’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韓國史新論』에서는 제10장 兩班社會의 발전을 ‘士林派의 대두’ ‘士禍와 黨爭의 발생’ ‘倭와의 항쟁’ ‘兩班文化의 융성’ 등 4개의 절로 나누었는데, 개정판에서는 ‘勳舊勢力 지배하의 社會的 變化’ ‘士林勢力의 등장’ ‘倭·胡와의 抗爭’ ‘士林의 文化’ 등으로 나누어 그 절의 제목이 많이 변했다. 개정판에서는 士林이 성장하기 시작하던 15세기말에서 胡亂이 일어났던 17세기 전반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성장했던 사림세력을 중심으로 구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왕조 지배층을 全時期的으로 총칭하는 양반사회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韓國史新論』 전체의 시대구분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李基白 자신이 표명했던 바와 같이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의 역사는 조선왕조의 건국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 건국의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역사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연 고려왕조 후기의

79)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p. 1

80) 李基白, 『韓國史新論 개정판』, p. 2

어느 시기부터 신흥 사대부들이 성장해 가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왕조가 건국되던 때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묶었다. 그리고 새 왕조가 건국되어서 새로운 지배체제를 마련해 가는 과정과 그런 체제의 성격이 완성되는 시대를 또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선전기의 역사는 『韓國史新論』에서 세 시기로 구분되었다.

<표 5> 『韓國史新論』, 『韓國史新論 改正版』, 『韓國史新論 新修版』의 目次 比較

『韓國史新論』(1967)	『韓國史新論』(개정판)(1976)	『韓國史新論』(신수판)(1990)
서장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1장 씨족사회와 부족국가 2장 부족연맹의 시대 3장 고대국가의 성장 4장 고대 전제국가 5장 호족의 시대 6장 귀족정치와 융성 7장 무인정권	서장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1장 원사공동체의 사회 2장 성읍국가와 연맹왕국 3장 왕족 중심의 귀족사회 4장 전제왕권의 성립 5장 호족의 시대 6장 문벌귀족의 사회 7장 무인정권	서장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1장 원사공동체의 사회 2장 성읍국가와 연맹왕국 3장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발전 4장 전제왕권의 성립 5장 호족의 시대 6장 문벌귀족의 사회 7장 무인정권
<b>8장 사대부의 등장</b> 1.고려 왕실과 원 2.사대부세력의 성장 농장의 발달/사대부의 진출/공민왕의 개혁 3.조선왕조의 성립 왜구의 격투/ 위화도화근/사건개혁/조선왕조의 성립 4.사대부의 문화	<b>8장 사대부의 등장</b> 1.친원정책과 권문세속 2.사대부세력의 성장 사대부의 진출/공민왕의 개혁 3.조선왕조의 성립 이성계의 집권/사건개혁/조선왕조의 성립 4.신흥사대부의 문화	<b>8장 신흥사대부의 등장</b> 1.친원정책과 권문세속 2.신흥사대부세력의 성장 신흥사대부의 진출/공민왕의 개혁 3.조선왕조의 성립 이성계의 집권/전제개혁/조선왕조의 성립 4.신흥사대부의 문화
<b>9장 양반사회의 성립</b> 1.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사대부와 왕권/양반사회 2.조선왕조의 통치기구 정치기구/군사조직/과거제도/교육기관 3.조선 사회의 경제적 구조 토지제도/농민의 생활/수공업과 상업 4.조선 초의 대외정책 대명외교/대외정책/북방개척과 아인 5.양반관료의 문화 한글의 창제/실용적 학문/과학과 기술/ 미술/문학과 음악/불교의 쇠퇴	<b>9장 양반사회의 성립</b> 1.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사대부와 왕권/양반사회 2.양반관료국가의 통치기구 정치기구/군사조직/과거제도와 교육 3.양반관료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 양반의 토지소유형태/농민의 생활/ 수공업과 공장/상업과 화폐/천민의 상태 4.조선 초의 대외정책 대명외교/북방개척과 아인/대외정책 5.양반관료의 문화 한글의 창제/실용적 학문/과학과 기술/ 미술/문학과 음악/불교의 쇠퇴	<b>9장 양반사회의 성립</b> 1.조선 양반사회의 성립 사대부와 왕권/양반사회 2.양반관료국가의 통치기구 정치기구/군사조직/과거제도와 교육 3.양반관료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 양반의 토지소유형태/농민 외생물/ 수공업과 공장/상업과 화폐/천민의 상태 4.조선초의 대외정책 대명외교/북방개척과 아인/대외정책 5.양반관료의 문화 한글의 창제/실용적 학문/과학과 기술/ 미술/문학과 음악/불교의 쇠퇴
<b>10장 양반사회의 발전</b> 1.사림파의 대두 농장의 확대와 공부의 증가/사림의 진출 2.사회와 당쟁의 발생 사회/당쟁의 발생 3.왜와의 항쟁 임진왜란/왜병과의 항쟁/정유재란 4.양반문화의 융성 주자학의 융성/서원과 향약/가사와 시조	<b>10장 사림세력의 성장</b> 1.훈구세력 지배하의 사회적 변화 훈구세력의 지배/농장의 확대와 공부의 증가 2.사림세력의 등장 사림의 진출/서원과 향약/당쟁의 발생 3.왜·호와의 항쟁 임진왜란/왜군의 격투와 난의 영향/병자호란 4.사림의 문화 성리학의 융성/보학과 예학/가사와 시조	<b>10장 사림세력의 성장</b> 1.훈구세력 지배하의 사회적 변화 훈구세력의 지배/농장의 확대와 공부의 증가 2.사림세력의 등장 사림의 진출/서원과 향약/사림정치/분당의 발생 3.왜·호와의 항쟁 임진왜란/병자호란 4.사림의 문화 성리학의 융성/보학과 예학/가사와 시조
<b>11장 농촌의 문화와 상업자본의 발달</b> 1.당쟁과 탈영 사신담파의 싸움/족보와 예학/당쟁해 12장 양반 신분체제의 변화와 농민의 반란 13장 국제무대에서의 등장과 개화세력의 성장 14장 농민전쟁과 근대적 개혁 15장 계급주의 철학과 민족국가의 태동 16장 일본의 문단정치와 민족주의의 성장 17장 민족주의의 발전 18장 민주주의의 성장	11장 광각농민과 도교상인의 성장 12장 양반신분체제의 동요와 농민의 반란 13장 개화세력의 성장 14장 민족국가의 태동과 계급주의의 침략 15장 민족운동의 발전 16장 민주주의의 성장 중장 한국사의 발전과 지배세력	11장 광각농민과 도교상인의 성장 12장 중인층의 대두와 농민의 반란 13장 개화세력의 성장 14장 민족국가의 태동과 계급주의의 침략 15장 민족운동의 발전 16장 민주주의의 성장 중장 한국사의 발전과 지배세력

그러므로 李基白의 『韓國史新論』에 의해 조선전기의 역사가 다른 어떤 시대와도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시대로 재인식될 수가 있었다. 그 전에는 시기적으로 편의상 나누었을 뿐 조선의 각 시대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韓國史新論』에서는 달랐다. 1960년대 이후 고려 후기 鄕吏層의 성장과 조선왕조의 건국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sup>81)</sup>, 李基白은 이러한 연구를 자신의 개설에서 체계화함으로써 고려말에서 조선왕조의 건국시기를 전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韓國史新論』의 출현은 이 방면의 연구에 더욱 자극을 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적인 학자들의 연구의 목적과 지향성을 뚜렷하게 자극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76년의 개정판에서 제10장을 사립세력의 성장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그 내용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초부터 사립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sup>82)</sup>. 李基白은 개정판을 내면서 이 학설들을 적극 활용해 이 시대를 사립세력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자리 매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韓國史新論 改正版』에서 사립시대의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지자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모두 그가 개설서를 쓰면서 학계의 연구동향에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가를 말해 준다.

사실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이해하고 시정하는데 있어서 조선전기의 역사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왕조는 바로 日帝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한 왕조의 멸망은 우리 민족 모두를 그대로 가혹한 식민지 상황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事大主義의 民族性論, 亡國의 黨派性論, 文化的 他律性論, 停滯性論 그 모두가 마치 조선왕조의 역사에 그대로 꼭 들어맞는 것처럼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선왕조의 전기에 다 그 특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역사가들이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정작 조선시대, 특히 조선전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81) 예를 들면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대하여」는 고려말 신흥사대부의 향리 기원설을 주장한 첫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은 1964년에 발표된 것이다. (『歷史學報』 23)

82) 예를 들어 사립파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은 李泰鎮,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은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農壇學報』 34집과 35집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韓國史新論』에서 李基白은 조선전기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데 성공하였다.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벗어나면서, 고려말 사대부의 성장으로 조선왕조의 건국이 가능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왕조의 기본 통치체계가 완성되고 새로운 유교문화가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다시 사림세력이 등장하여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의 성리학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전기의 역사가 체계화되자 더 이상 식민주의사학을 말할 필요조차 없어졌던 것이다. 李基白은 개별적인 역사가들의 연구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전기를 한국사상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닌 시대로 재발견한 역사가였다. 이제 조선전기 역사를, 500년 역사를 지닌 조선시대를 편의상 전후반으로 나눈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역사상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시대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학계의 상식처럼 되어 버릴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韓國史新論』은 한국사학사 전체에 있어서나, 조선전기의 사학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설서라고 생각한다.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乙酉文化社, 1962)은 현재까지도 조선전기만을 다룬 유일한 시대사이며, 당시까지 알려진 조선전기 역사에 대한 사실을 종합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조선왕조 건국의 역사를 연구해 왔던 저자 李相佰도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였다. 그는 특히 시대구분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震檀學會가 기획한 『韓國史』중에서 자신이 맡은 이 조선전기 역사가 한국사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사실상 이 책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기에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하였다.

또 歷史의 時代區分은 主題에 따라서 다를 것이니, 例하면 政治史나 社會史나 文化史에는 時間的인 區分과는 서로 差異가 있을 것이 明白하고, 政治上에 大變動이 있어도 文化上의 活動에는 동일한 상태가 계속하기도 하고, 政治上의 情勢가 같아도 社會組織이 변화한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國民史나 民族史의 時代區分을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어떠한 때는 政治上의 形勢에 따라서, 어떠한 때는 社會組織의 變化에 따라서, 또 어떠한 때에는 文化的 狀態로서 구분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미 時代區分의 無意味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책에도 그러한 矛盾을 피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sup>83)</sup>

83)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乙酉文化社, 1962), 序文, p. 2

그는 역사를 서술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대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서술에서 여러 기준이 편의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時代區分의 無意味한 것”임을 동시에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사를 서술할 때 흔히 적용되던 “古代·中世·近世 같은 時代區分은 원래 歐洲人이 歐洲의 歷史를 다루기 위하여 생각해 낸 것”이므로, “우리의 歷史를 동일한 時代區分으로 區劃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朝鮮時代를 近世史라고 명명한 것은 현재 “世界的으로 公認되고 있는 近世·近代라는 말과는 전연 맞지 않는 것”이며, 이 책에서도 제목에 근세라는 말이 있어도 근대화에 관한 문제는 일체 다룰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그는 조선시대 역사를 “近世史라기 보다는 朝鮮王朝時代史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sup>84)</sup> 李相佰이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했다기 보다, 다른 유용한 시대구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현실에 맞지도 않는 서양식의 시대구분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왕조 중심으로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사는 다시 어떻게 시대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는 조선시대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sup>85)</sup> 李相佰은 이 책에서 선조말,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조선전기란 임진왜란이 종결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이후는 조선후기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 건국 후에 마련된 왕조의 체제가 확립되고 제대로 유지되던 때를 조선전기로 구분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표 6> 李相佰의 朝鮮時代史 區分

시	기	성	격
제1기	太祖初(1392) - 成宗末(1494)	조선왕조의	創業·守成
제2기	燕山初(1495) - 宣祖末(1608)	문화의 爛熟과 頹廢의 경향이 생기기 시작/	壬辰倭亂
제3기	光海初(1609) - 英祖末(1776)	胡亂/倭·胡兩亂	여파로 초기의 제도가 변모하기 시작
제4기	正祖初(1777) - 高宗13年(1876)	西歐文化의 전래와 조선왕조의	반작용
제5기	高宗13年(1776) - 隆熙4年(1910)	開國이후 사회의	급변/植民地化

그는 조선전기, 나아가서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이 책의 總論에서

84) 이상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pp. 2-3 참조.

85)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pp. 19-24를 참조할 것.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개관한 다음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흔히 사람들은 간단히 朝鮮王朝時代의 문화는 墮落하였다고도 하고 萎縮했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말이 아니면, 종전에 日本人들이 우리 文化를 蔑視·抹殺하려던 意識的인 史觀에 同調하는 태도다. 朝鮮의 文化는 新羅나 高麗의 文化와는 그 基礎나 性質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대로 獨自的인 業績이 있는 것이다. 朝鮮王朝가 明·淸이라는 世界的 大帝國에 隣接하여 막중한 그 政治的·文化的 압력을 받고, 또한 편으로는 無時로 出沒하는 外寇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 獨立·自主를 유지하여온 連綿不絶의 文化를 漠然히 皮相的으로 事大主義라 하고, 模倣的이라 하고, 萎縮 固陋하다고만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아직 충분히 味得하지 못한 淺見이다.<sup>86)</sup>

그는 조선왕조의 문화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측면을 발견하였으며, 또 명·청이라는 주변의 대제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성을 유지해 온 조선왕조 역사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조선전기의 역사를 쓰면서 이 때를 事大主義論, 黨派性論, 文化的 他律性論으로 왜곡시켰던 식민주의사관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李相佰은 조선왕조와 明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李仁榮의 설명을 따랐으며<sup>87)</sup> 勳舊-士林의 대립 및 士禍·黨爭에 대해서도 매우 체계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사화 前後로부터의 政爭은 종래의 그것과 성격이 다른 면도 적지 않으니, 우선 그것이 恒續的인 派黨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떤 당면한 목표를 위해서 형성되는 派黨이 아니라, 性理學이라는 思想을 토대로 하여 中央과 地方에 걸쳐 뿌리를 박고 정치상의 현상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존속되어간 ‘士林’이라는 組織 내지 勢力이, 정치의 표면에 나서서 그때 그때의 대립세력과 충돌하여 受禍한 것이다. 다만 士林의 대립세력인 勳舊·外戚·宮廷側近 등의 세력은 이 같은 組織的인 派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탄압은 少人數의 음모로 시작되었지만, 탄압을 받는 士林의 조직적 세력은 官僚 및 準官僚라 할 儒生까지도 동원이 되어, 多數로써 정권담당자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는 공공연한 논의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

86)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總論, pp. 18-19

87)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의 pp. 110-111. 사대정책에 대한 설명은 李仁榮, 『國史要論』, pp. 123-125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이 글의 주 90을 참조)

라서 후일 宣祖初에 일어났다고 하는 ‘朋黨’ 및 ‘黨爭’은 비록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나 실은 이미 士禍 前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다수의 士類가 일시에 受禍하는 ‘士禍’는 後期 黨爭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서, 말하자면 ‘黨爭’은 권력쟁탈의 政爭이 진행되는 상태요, ‘士禍’는 그 政爭에서 敗자가 당하는 報復이요 黨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88)</sup>

그는 초기 士禍의 발생 원인을 勳舊-士林의 두 세력간의 대립으로 보았으며, 당시의 派黨이 性理學을 토대로 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동시에 사회와 당쟁은 매우 일체적인 관계에 있음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당쟁은 “이미 政局의 主導權을 잡은 士林 내부에서의 新舊對立으로서, 모두 中央과 地方에 걸쳐 人的·物的인 地盤을 가진 세력끼리의 爭鬪이었던 것”<sup>89)</sup>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李相佰의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은 시대구분상 조선 전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지는 못하였으며, 나아가 전체적으로 왕조 중심의 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책을 통하여 조선전기의 역사가 당시로서 종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해석에 있어서 소위 식민주의사관이 자리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李相佰 자신이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시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사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아닌가 한다.

## 5.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傾向의 概說書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에 있어서 한국사가 교양필수과목에서 점차 제외되어 가면서 개설서의 출판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기에 출현한 몇 권의 새로운 경향의 개설서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민중사연구회 편, 『한국민중사』(풀빛, 1986), 구로역사연구소 편, 『바로보는 우리 역사』(거름, 1990), 한국역사연구회 편,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등은 모두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나온 개설서들이다.

88)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 pp. 563-564

89) 震檀學會 編 『韓國史 近世朝鮮前期篇』의 pp. 565-566

이들 개설서들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금기되어 왔던 마르크스의唯物史觀에 입각해 서술된 역사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러한 경향에 따르는 몇 권의 개설서가 출판되었지만, 1953년 전쟁 이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대립이 날카로워 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향의 역사서가 제대로 출판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 개설서들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民主化, 多元化的의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징조로 받아들여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민중사』의 집필자들은 이 책을 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오직 '대중적 요구에 답한다.'는 최소한의 시도를 한 것일 뿐 에  
 초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롭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체계화를 시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현재적 요구를 가늠하여  
 그것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사학계의 성과를 반영하고 정리하  
 고자 하였을 뿐이다.<sup>90)</sup>

이들 집필자들은 자신의 개설서가 “새롭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오직 대중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로 보는 우리 역사』의 집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일년 전 '구로 역사 연구소'를 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민중  
 주체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취지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먼저 청년 학생은 물론 일반 대  
 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대로 된 우리 역사', 곧 '바로 보는 우리 역  
 사'를 기획하고 집필에 들어갔다 ....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답하  
 기 위하여 지배 계급의 역사를 비판하고 '민중 주체의 우리 민족사'를  
 체계화하여 '바로 보는 우리 역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sup>91)</sup>

이들은 “역사를 민중 주체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민중 주체”의 민족사를 체계화한 결과로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은 “오직 대중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책을 낸다는 『한국민중사』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게 민중 중심의 역사관에 따른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90)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I), (풀빛, 1986)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p. 4

91) 구로 역사 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 역사』 (거름, 1990) '책을 내면서', p. 5-6

그리고 이들 두 책보다는 훨씬 학술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한국역사』에서는 그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한국역사연구회는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의 수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가을에 창립되었다. 그 동안의 과학적 역사인식과 방법론의 모색, 그리고 그것에 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 책의 편찬을 계획한 것은 1990년 7월이었다. 그 해 9월에는 통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미 간행된 통사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 통사들은 역사의 발전을 지배세력의 변천과정에 기준을 두고 파악하고 있거나, 종합사로서 문화사의 발전으로 이해하면서도 지배층의 문화가 곧 전체 문화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인 역사관을 내세우더라도 실제적인 내용 서술에서는 그간의 진전된 연구성과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sup>92)</sup>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학문세계를 “과학적 실천적 역사학의 수립”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개설서를 낸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의 개설서들이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임을 비판함으로써, 이 책을 지배세력이 아닌, 말하자면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며, 아마도 이러한 입장을 “진보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찍이 全錫淡은 『朝鮮史 研究의 實踐的 意義』라는 부제를 지닌 『朝鮮史教程』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歷史를 알고자 하는 목적은, 過去의 終點인 동시에 未來의 시발점인 현재를 운동에 있어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를 알려고 애쓰는 것은, 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옛 이야기를 취미 삼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건설해 나가자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적 궤도를 찾아내자는 목적에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적 의의를 지닌 것이며 따라서 실천을 떠난 역사 과학은 학문이 아니라 古談·閑話에 지나지 않는다.<sup>93)</sup>

9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책을 내면서’ pp. 3-4

93) 全錫淡, 『민중조선사』, p. 11

즉 全錫淡은, 역사학의 목적은 “미래의 시발점인 현재를 운동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며, “역사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적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명료하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 『자본론』의 명제를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半封建적 상태에 있느니 만큼 우리 사회에서 모든 封建적 요소를 청산하는 부르주아혁명이 당연한 역사적 과제로 되어 있다.”<sup>94)</sup>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역사의 원동력, 혹은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노동자·농민·진보적 소시민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고, 근로대중의 이러한 결집은 곧 새로운 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sup>95)</sup>

그는 노동자·농민·진보적 소시민을 “근로대중”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들이 곧 새로운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의 힘이 필요하다. 인간은 역사의 피조물인 동시에 역사의 창조자이다.”<sup>96)</sup>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근로대중”은 “인민”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확실히 하였다.<sup>97)</sup>

이렇게 보면 여기서 언급한 세 개설서에 나타난 집필자들의 저술목표는 기본적인 면에서는 全錫淡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출판된 세 개설서들을 全錫淡을 위시한 우리 나라 자체의 唯物史觀的 歷史學의 전통 속에서 이해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 이 세 개설서와 李清源, 文錫俊, 全錫淡의 저서에 시도된 시대구분의 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다음의 표는 그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94) 全錫淡, 『민중조선사』 pp. 13-14

95) 全錫淡, 『민중조선사』 p. 14

96) 全錫淡, 『민중조선사』, p. 17

97) 이 논문에서 全錫淡의 『조선사교정』을 검토할 때는 범우사에서 1989년에 범우문고판으로 다시 출판한 『민중조선사』를 대본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 『민중조선사』가 1989년에 출판되었다는 것도 흥미있지만, 『조선사교정』이라는 원 제목을 『민중조선사』라고 바꾼 것도 흥미롭다. 요즘 한국사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민중”이라는 말이 全錫淡이 사용했던 “근로대중”, “인민” 등의 말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좋다는 일반적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표 7> 唯物史觀에 의한 개설서들과의 時代區分 비교

시대 서명	석기시대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 신라	후 삼국	고 려	조 선	개 항	일제시대	해방 이후
朝鮮歷史讀本 1937	원 시 사 회		노 예 사 회			봉 건 사 회		자본주의 침입	이 식 자본주의	
朝鮮歷史 1945.12	원시공산주의사회		고대정복국가		봉건국가의 성립/발전	봉건국가의 성숙/쇠퇴				
朝鮮史教程 1947	원시조선	고대 아시아적 국가의 성 립/발 전		관 료 적 집권봉건제 성 립	관 료 적 집권봉건제 발 전	관료적 집권봉건제 완 성		(동학이후) 봉건조선의 몰 락		
한국민중사 1986	원 시 · 고 대 사 회			중 세 I (남북국시대와 고려)		중 세 II (조선시대)		근 대 I	근대 II	현대
바로 보는 우리역사 1990	원시공동체 사회	고 대 사 회		봉건사회의 성 립	봉건사회의 발 전	봉건사회 재편성	봉건사회 의 동요			
한국역사 1992	원시사회	고 대 사 회		봉건사회의 성 립	봉건사회의 발 전	봉건사회 재편성	봉건사회 해 체	근 대		현대
조선통사 1977	원시공동 체적사회	노예소유자 사 회	봉건사회의 발 생	봉건관계의 발 전	봉건제도의 정 비	봉건체제의 재편성/위기		근 대		현대

위의 표를 보면 먼저 1937년 李清源, 『朝鮮歷史讀本』에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말 까지를 노예사회로, 조선건국 이래 개항 이전까지를 모두 봉건사회로, 그리고 개화기를 자본주의침입, 일제시대를 移植資本主義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文錫俊의 『朝鮮歷史』에서는 고조선까지를 원시공산주의사회로, 삼국시대에서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고대정복국가로, 고려 건국 이후 한일합방 때까지를 봉건국가 시대로 보았다. 여기에서 文錫俊은 고려시대를 봉건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시기로, 그리고 조선시대를 봉건국가의 성숙과 쇠퇴의 시대로 다시 구분하였다. 全錫淡의 『朝鮮史教程』에서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를 고대 아시아적 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시대로,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 한일합방 때까지를 관료적 집권봉건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 나라의 봉건시대를 官僚的 集權封建制라 이름하고, 統一新羅에서 後三國 末까지를 官僚的 集權封建制의 成立期, 高麗時대를 그 發展期, 朝鮮時대를 그 完成期로 보았으며, 東學 이후를 封建朝鮮의 沒落期로 구분하였다. 위의 세 책은 모두 1937년에서 1947년 사이에 출판된 유물사관에 따른 개설서이다.

다시 위의 표에서 1986년의 『한국민중사』를 보면, 삼국시대까지를 원시·고대

사회로, 통일신라에서 고려말까지를 중세 I, 조선시대를 중세 II, 개항 이후 한일 합방까지를 근대 I, 일제시대를 근대 II, 그리고 해방 이후를 현대로 구분하였다. 1990년의 『바로 보는 우리 역사』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말까지를 고대사회로, 통일신라 이후 개항 이전까지를 봉건사회로 보았다.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후삼국 말까지를 봉건사회의 성립기로, 고려시대를 그 발전기로, 조선전기를 그 재편성기로, 그리고 조선후기를 그 동요기로 구분하였다. 1992년의 『한국역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말까지를 고대사회로, 통일신라 이후 개항 이전까지를 봉건사회로, 그리고 개항 이후 일제 말까지를 근대로, 해방 이후를 현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990년의 『바로 보는 우리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고대사회 이전을 『바로 보는 우리 역사』에서는 원시공동체 사회를 원시사회로 이름 한 것이 다르며, 조선 후기를 전자에서 봉건사회의 동요라 한 것을, 봉건사회의 해체라 한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거의 같은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삼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한의 개설서인 『조선통사』 1977년 판을 보면, 고조선을 노예소유자사회로, 삼국시대를 봉건사회의 발생기로, 통일신라에서 후삼국 말까지를 봉건관계의 발전기로, 고려를 봉건제도의 정비기로, 조선시대를 봉건제의 재편성과 위기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항 이후 일제 말까지를 근대로 해방 이후를 현대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위의 표에 표시된 개설서들은 모두 고대-봉건-근대, 혹은 고대-중세-근대의 시대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사회의 시작을 어느 때로 보느냐에 대하여 조금씩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통일신라이후 개항 이전까지는 모두 봉건사회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특히 우리 역사시대의 대부분을 봉건시대로 보면서도, 그 봉건시대 안에서도 성격의 차이를 부여하려고 하였는데, 그 차이는 모두 왕조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다. 그럴 경우 고려 건국 이전은 봉건사회의 성립기, 고려시대는 그 발전기, 조선시대 전기는 봉건시대의 완성기 혹은 재편성기, 조선 후기는 위기, 동요, 혹은 해체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와 관련해서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세 권의 개설서 가운데, 『바로 보는 우리 역사』와 『한국역사』는 이 때를 봉건사회의 재편성기로 보았다. 이런 경우 고려시대에 발전했던 봉건사회가 재편성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 권의 개설서 가운데 가장 체계가 잡혀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역사』에서는 “조선의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sup>98)</sup>이라고 단정하고, 조선 전기의 (봉건사회) 지배구조의 재편 의의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의 지배구조는 고려 후기 이래 농업생산력의 발전 위에서 이루어진 사회변동의 결과였다. ....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중첩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농민의 유동성이 커져 토지에 얽매이는 정도가 작아졌다..... 이렇게 조선 초에는 농업발전에 따라 사회관계가 바뀌고 신분제와 지배 기구가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백성인 농민도 이제는 제 뜻을 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농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99)</sup>

말하자면 지속적인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조선초기에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조선초기에는 봉건사회가 재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이들 개설서는 그들이 표방하는 이념에 따라 민중 혹은 농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적어도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사학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시도들은 우리 사학사의 전통을 한국전쟁 이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다른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全錫淡은 해방 직후에 『朝鮮史敎程』을 내면서 상당한 知的인 고뇌를 겪었다. 그의 책은 비록 얇고 그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唯物史觀에 따른 한국사개설서를 써야하는 그의 지적인 탐색은 매우 진지해서 오히려 내용은 많으나 역사가의 사색이 결핍된 두꺼운 개설서들 보다 더 돋보이는 점이 있다. 全錫淡은 唯物史觀의 세계적, 보편적인 추세와 한국사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괴리 현상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오늘날 그의 책의 내용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책에 표명된 그의 史觀을 누구나 마음놓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知的인 思索 그 자체 때문에 『朝鮮史敎程』은 우리 史學史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개설서들은 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론적인 시대구분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왜 조선전기가 봉건사회의 재편성기인지, 한국사에 있어서 봉건사회가 왜 그렇게 길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

98)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p. 124

99)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pp. 125-126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르크시즘도 全錫澍이 살았던 1947년대와는 달리 해석되고, 달리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한국사학계에서는 그런 세계적 조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의 원전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에 대하여도 깊은 소양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훨씬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원화는 우리 역사를 훨씬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역사가는 역사해석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정교하게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목적은 他人의 研究成果를, 그것이 비록 자신의 견해와 매우 다른 것일지라도, 성실하게 읽어주는 思慮 깊은 讀書와 思索의 과정을 통해서 만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朝鮮王朝는 500여 년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연구하거나 기술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어느 주제를 택하더라도 그 주제의 500년 역사를 정리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은 朝鮮時代史에 관한 史料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더욱 커졌다. 여기에 더하여 조선왕조의 운명이 日帝의 침략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침략자들은 한 왕조의 몰락을 민족사 전체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과장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를 20세기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시대로 보았다는 점에서 일제의 식민주의사관에 동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겹쳐 500년 넘게 지속된 조선시대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는 日帝의 어용학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事大主義가 절정에 달했으며, 亡國的 黨爭은 끝없이 확대되었고, 그 문화에도 독창성이 없는 시대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선시대의 전반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는 世宗-世祖-成宗代에 그 국력이 발전하고 불만한 치적이 많기도 하였지만, 건국 그 당시부터 사대주의는 나라의 국기

가 되다시피 하였으며, 따라서 중국적으로는 문화의 독창성도 없게 되었다. 조선 왕조가 건국 때부터 儒敎를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정치가 아니라 오직 권력만을 추구하는 당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와 당쟁이 발생했던 조선전기의 정치사를 이렇게 왜곡하기를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일제 때 安廓과 같은 극히 소수의 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설서들에 서술된 조선전기의 역사상은 일제의 어용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서 조선전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조선시대는 물론 한국사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국사 개설서를 집필했던 학자들에 의해 먼저 심각하게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解放 이후 당장 국민교육적인 차원에서도 通時代인 개설서가 나와야 할 필요성은 시급하였으며, 개설서의 성격상 한국사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방된 나라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질 한국사개설서에서는 일제의 植民主義史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럴 경우 사대주의론, 망국적 당파성론, 문화적 타율성론, 정체성론으로 일관한 역사로 낙인찍힌 조선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하였다.

이런 점에서 해방 후 孫晉泰와 李仁榮의 노력이 매우 돋보였다. 孫晉泰는 일제의 식민주의사관의 허구성을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민족주의적 한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이성적 사색을 깊이 추구하였다. 그는 일제의 식민주의사관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비학문적인 감정적 대응에 쉽게 빠져들어 대안을 구하려는 우리 나라의 知的인 풍토를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해방 이후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을 보편적 세계사의 올바른 흐름이라 인식하고, 한국사도 그런 보편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는 국내의 유물론적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한국사를 세계사의 정당한 한 부분으로 인식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 식민주의사관의 영향을 극복하려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民族이 階級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족사의 서술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1949년에 나온 『國史大要』는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國史大要』의 조선전기 부분조차도 그의 新民族主義史觀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되지는 않았다.

1960년 李仁榮은 孫晉泰의 영향을 이어 받아 『國史要論』을 집필하였다. 그는

역사의 보편성만을 강조하는 唯物史觀論的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觀念的 民族性的 優秀 또는 劣惡”에 만사를 귀결시키는 편협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역사관을 “民族的 世界觀에 立脚한 世界史的 國史의 새로운 認識”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역사관이 앞으로는 크게 보급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孫晉泰의 新民族主義的 태도에 상당히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도 孫晉泰의 역사관과 역사해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孫晉泰와의 차별성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사 전체를 민족의 성장과 발전, 쇠퇴와 침체라는 점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孫晉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전기 부분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李仁榮은 孫晉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그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李仁榮은 먼저 조선 왕조의 事大交隣政策이 한·중 양국간에 가져다 줄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사대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그는 사화도 朝鮮 王朝의 사회와 정치가 고정 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개혁하여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려는 요구에서 우러난 현상이라는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당쟁도 초기와 후기에 따라 성격이 달랐음을 암시하면서, 土禍 시대에 있어서는 朱子學的 理論의 이상주의적 실천 운동이 주가 되었으나 黨爭 시대에 들어서부터는 黨派性만이 주가 되고 뚜렷한 主義 主張의 이론적 전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事大主義, 土禍, 黨爭, 이 세 가지 주제는 일제시대이래 조선시대를 단죄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었으며, 이 때까지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다. 물론 그도 “李氏王朝의 정치와 문화는 成宗 일대를 爛熟期로 하여 이후 쇠퇴기”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李仁榮은 이러한 그릇된 상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건국과 그 역사를 재인식하게 만든 역사가였다.

해방 이후 그 짧고 혼란스럽던 시절에 한국사 인식과 조선전기 역사해석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孫晉泰와 李仁榮의 업적은 韓國史學史에서 기억해야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업적이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왕조의 건국사를 새롭게 하려는 李相佰의 노력을 위시하여 1948년 李丙燾의 『朝鮮史大觀』과 같은 종합적인 개설서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유물사관론적인 역사해석이 던진 학문적인 과제는

孫晉泰와 李仁榮의 역사적 성찰을 더욱 깊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방 이후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려는 여러 갈래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 우선 孫晉泰와 李仁榮은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역사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였다. 그리고 孫晉泰와 李仁榮이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더욱 깊이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던 유물사관적 역사해석이 한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끊기고 말았다. 이것은 조선전기의 역사연구 뿐 아니라 한국사학계 전체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李丙燾의 『朝鮮史大觀』은 『國史大觀』으로 서명을 바꾸면서 판을 거듭하였다. 『朝鮮史大觀』은 중요한 대목마다 관계되는 사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기초적 사실들을 많이 열거하였다. 당시 개별적인 연구가 매우 미진하였던 상황 속에서도 개설서에서는 어떤 종합적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데, 李丙燾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이런 식으로나마 좁히고자 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에 있어서는 勳舊派, 士林派, 節義派, 淸談派 등의 학문적, 정치적, 사상적인 태도가 다른 세력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뒷날 훈구파와 사림파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해방 이후 孫晉泰와 李仁榮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새로운 민족주의적 역사해석은 李基白에 의해 다시금 발전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1961년의 『國史新論』을 통하여 먼저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을 위한 본격적 노력을 기울였다. 孫晉泰와 李仁榮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면에서 문제삼은 역사가는 아직 드물었다. 그런 의미에서 李基白은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이라는 점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이룩된 한국사 전 분야에 걸친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성실하게 읽고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國史新論』에 관련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일일이 제시하고 또 전체적인 목록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李基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7년에는 『韓國史新論』을 집필하였다. 그는 참다운 개설서의 생명은 그 저자만의 사관이 바탕이 되는 독창적인 時代區分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식민주의사관은 그에 대한 비판만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으로 체계화된 개설서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韓國史新論』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는 여기에서 王朝 중심의 시대구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일찍부터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가들은 한국사상의 대부분의 왕조를 封建社會로 규정함으로써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왕조가 기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식의 시대구분에서는 한국사의 특수성이 완전히 무시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기백 자신의 독창적인 역사관에 토대를 둔 『韓國史新論』은 한국사를 타율적, 정제적으로 해석하였던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었으며, 그 대안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研究成果를 저자 자신만의 독특한 史觀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려는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대한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民族主義를 유난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역사를 너무나 특수하게 해석하여 그릇된 신화적 역사로 타락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1976년에 나온 李基白의 『改正版 韓國史新論』은 1967년의 『韓國史新論』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特殊性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人類歷史의 普遍性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해석이 자기만의 독특한 史觀에 의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따지고 보면 인류의 普遍的 價值 속에서 읽힐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李基白은 『韓國史新論』의 역사해석이 그만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국사학사의 전통 속에서 자라온 것임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改正版 韓國史新論』에서는 식민주의사관에 대한 비판 내용 대신에 한국 近代의 史學史的 傳統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세운 자신의 역사해석의 독창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고 또 왕조 중심의 시대구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韓國史新論』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사에 대한 해석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려말에 새롭게 성장한 新進士大夫들의 노력으로 조선왕조의 건국이 가능하였으며, 成宗代 이후에는 士林派의 성장으로 왕조는 동일하지만 사회는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해 간 것으로 당시의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물론 이것은 그가 李佑成이나 李泰鎮 등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성과에 크게 의존한 것이지만, 그가 평소에 조선전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구성과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韓

『國史新論』에서 新進士大夫 등장과 士林勢力的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도한 조선전기사의 체계화는 이후 이 분야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韓國史新論』으로 인하여 조선전기가 500년의 조선왕조역사를 편의상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역사상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닌 독자적인 시대로 자리를 잡게되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대주의, 망국적 당파성론, 무기력한 정체성론으로 얼룩진 조선왕조의 역사가 그 시초부터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식민주의사관 비판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술과 해석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 이후 韓祐의 『韓國通史』를 비롯하여 많은 개설서들이 출판되었다. 이들 개설서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는 있으나 또 다른 시대구분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이 때부터 크게 성장했던 한국사 연구의 성과를 저자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체계화하려는 절실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대폭 촉진되면서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소위 科學的 實踐的 歷史學을 표방하거나, 民衆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런 경향은 한국전쟁 이후 금기시 되어 온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따른 역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쓰여진 개설서도 여러 종이 나오게 되었으며, 학계는 물론 이거니와 일반 독서계에도 상당한 자극과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의 개설서들은 한결 같이 한국사를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시대구분하는 방식을 따랐다. 한국 역사시대의 대부분이 中世 혹은 封建社會라는 시대구분은 그 자체로서 서구적인 봉건사회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한국사에 적용할 경우에도 역시 한국사의 구체적 현실에 그대로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구분을 한국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시대구분이 서구와는 다른 양태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봉건사회가 한국사에서는 1000여 년 이상을 계속된 것으로 본다면, 삼국시대와 조선전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건사회의 발생기, 발전기, 재편성기 등의 단계를 다시 설정하기도 하지만 봉건사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사의 발전으로가 아니라 한국사의 정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설을 자신의 역사연구와 서술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 이론의 원천에 해당되는 原典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경향에 대하여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한국사학사의 전통 속에서 자신들과 유사한 입장에서 역사 해석을 시도하였던 학자들의 노력을 성실하게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는 한 두 사람이 정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연구성과가 쌓여가고 있다. 그에 따라 매우 많은 학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사 연구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종합되는 기회를 가질 때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화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체계적인 종합화는 더욱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좋은 개설서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은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그 전체를 종합하려는 哲學的 思索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한 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조선전기의 역사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때가 한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시간적 전후 관계와 결부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좋은 개설서를 쓰거나, 좋은 연구성과를 얻는 일은 자신과 해석을 달리하는 학자들의 연구성과 조차도 성실하게 읽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일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간행 년도 順)

- 學 部, 『大韓歷史略』(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亞細亞文化社, 1977
- 玄 采, 『中等教科 東國史略』(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亞細亞文化社, 1977
- 柳 瑾, 『新撰 初等歷史』, 大韓皇城廣德書林, 1910
- 林泰輔, 『朝鮮通史』, 東京:富山房, 1921
- 金澤榮, 『韓國歷代小史』, (南通翰墨林書局/金澤榮全集), 아세아문화사, 1978
- 朝鮮史學會, 『朝鮮史講座 一般』, 朝鮮總督府, 1923
- 安 廓, 『朝鮮文明史』, (自山 安廓國學論著集), 여강출판사, 1994
- 靑柳南冥, 『朝鮮文化史 大全』, 朝鮮研究會藏版, 1924
- 玄 采, 『半萬年 朝鮮歷史』, 京城: 德興書林, 1928
- 崔南善, 『朝鮮歷史』, 東明社, 1931
- 李昌煥, 『朝鮮歷史』, 北星社, 1934
- 稻葉岩吉, 『朝鮮滿洲史』, 平凡社, 1935
- 李清源, 『朝鮮歷史讀本』, 東京: 書店 白揚社, 1937
- 宮崎五十騎, 『概觀朝鮮史』, 東京: 四海書房, 1937
-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弘文堂, 1940
- 成敦益, 『朝鮮歷史』, 한글 문화普及會, 1945. 10
- 文錫俊, 『朝鮮歷史』, 咸鏡南道教育文化部, 1945. 12
- 김성철, 『조선역사』,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6. 2
- 鄭碧海, 『朝鮮歷史』, 中央出版社, 1946. 7
- 全錫淡, 『朝鮮史教程』, 乙酉文化社, 1947
- 李丙燾, 『朝鮮史大觀』, 同志社, 1948
- 孫晉泰, 『國史大要』, 乙酉文化社, 1949
- 李仁榮, 『國史要論』, 金龍圖書會社, 1950
- 柳洪烈, 『韓國文化史』, 陽文社, 1950
- 김성철, 『국사통론』, 강당사, 1951
- 旗田魏, 『朝鮮史』, 岩波全書 154, 1951
- 三品彰英, 『朝鮮史概說』, 弘文堂, 1952
- 李丙燾, 『修訂增補 國史大觀』, 白映社, 1952
- 韓祐勛·金哲俊, 『國史概論』, 明學社, 1954
- 李丙燾, 『新修版 國史大觀』, 普文閣, 1955

- 李弘稷·韓 昞·申奭鎬·曹佐鎬, 『國史新講』, 一潮閣, 1958
- 李基白, 『國史新論』, 泰成社, 1961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 韓祐昞,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70
- 曹佐鎬, 『韓國史通論』, 博英社, 1975
- 金錫禧·朴容淑, 『韓國史概說』, 藝文社, 1976
- 李基白, 『改正版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 柳昌馨·李存熙, 『韓國史概說』, 東文社, 1978
- 河炫綱, 『韓國의 歷史』, 新丘文化社, 1979
- 李鉉宗, 『韓國의 歷史』, 大旺社, 1982
- 李丙燾, 『韓國史大觀』, 東方圖書, 1983
- 池明觀, 『韓國文化社』, 三民社, 1985
-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6
-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 풀빛, 1986
- 韓祐昞, 『改訂版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87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문화사』, 사회과학원, 1988
-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9
- 李基白, 『新修版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0
- 구로역사연구소, 『바로보는 우리 역사』, 거름, 1990
- 邊太燮, 『三訂版 韓國史通論』, 三英社, 1992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